

야마코시의 쓰노쓰키 투우 대회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투우 대회가 지금도 9 곳에서 진행되며, 야마코시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1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야마코시에서는 소를 농사일에 사용하면서 가끔 오락 삼아 투우를 진행했습니다. 투우는 에도시대(1603-1867년)에 조직화되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장내에서 소끼리 싸우게 하는 전통을 다른 지역에서는 '투우'나 '소 씨름'이라고 부르지만, 야마코시에서는 '쓰노쓰키(뿔로 받는다는 뜻)'라고 불리며 국가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승패를 정하지 않는다

야마코시의 쓰노쓰키는 소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투우와 크게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야마코시에서 대회에 출전한 소는 주로 농사일이나 짐 운반에 쓰이던 농경 동물이었습니다. 만약 소가 크게 다치면 주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승패를 명확히 지으면 작은 지역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마코시에서는 투우 중 소가 다치기 전에 무승부를 선언하는 것이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내의 조련사는 '세코라고 불리며, 싸움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소들이 서로의 힘을 과시해 관객들을 즐겁게 했을 때 또는 한 쪽 소가 상대를 압도하거나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무승부를 선언합니다.

소 쓰노쓰키 대회

야마코시의 쓰노쓰키는 몇 가지 점에서 스모와 비슷합니다. 대회는 5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며 각 대회는 10~13회의 경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황소들의 연습 경기부터 시작하여 더 강하고 경험이 풍부한 소들 간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먼저 장내를 소금과 술로 정화하는 의식을 한 후 세코와 주최자는 원을 그리며 손을 들고 대회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대전 중 장내에서 실황으로 대전하는 모습을 전하며, 소에 대한 정보와 열정적인 해설이 펼쳐집니다. 초반에는 소끼리 바로 떼어내기 위해 코걸이와 밧줄을 사용하지만, 후반 경기에서는 더 자유롭게 싸울 수 있도록 풀어주기도 합니다. 무승부가 선언되면 소의 뒷다리에 밧줄을 걸어서 분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세코가 직접 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뿔을 떼어 놓습니다. 소를 제압하는 용감한 몸놀림도 볼 만합니다.

싸움소

야마코시에서는 쓰노쓰키 대회에 출전하는 소가 세 살이 되는 봄에 데뷔시킵니다. 쓰노쓰키에 참가하는 소들은 과거에는 주로 가축용이었지만, 지금은

쓰노쓰키 전용 소로 사육합니다. 소에는 각각 용맹하고 극적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소 주인의 직업과 연관 지어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야마코시 및 동일한 전통을 지키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약 50 마리의 소가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